3강

구상력(Einbildungskraft)

경험을 통해 추상한 개념들이 있다. 우리는 개념에 상응하는 상(das dem Begriff entsprechende Bild)을 감성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 칸트는 개를 사례로 제시한다. 우리는 개를 네발이 달린 것으로 그릴 수가 있다. 우리의 의식 밖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 하나의 개들은 모양도 크기도 성격도 각각 다르다. 우리는 하나 하나의 개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라는 일반개념의 상을 그릴 때 이것을 네발이 달린 것으로 그릴 수가 있다. 칸트는 이것을 경험적 상으로 규정한다. 칸트는 재생산적 상상력을 경험적 상과 연결시킨다.

하지만 추상을 통해 얻어진 개념이 아닌 것들 즉 범주들이 있다. 이것은 경험적 개념과 같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주들은 근원이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에 있다. 우리는 이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칸트는 순수오성개념에 상응하는 상(das dem reinen Begriff entsprechende Bild=Schema)을 쉐마라고 한다. 순수오성개념은 범주는 경험적 개념과 같이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성적으로 그릴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칸트는 생산적 구상력을 통해 범주를 감성적으로 쉐마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험적 시간규정에 따른 범주의 감성화(die Versinnlichung der Kategorien nach der transzendentalen Zeitbestimmung)가 바로 쉐마다.

실체는 지속하는 것으로 그릴 수가 있다. 인과율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결합의 강제성 내지 필연성을 우리는 으니까로 도식화할 수가 있다. 즉 으니까는 범주를 감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범주를 대상일반에 관계시킬 때 범주를 감성적으로 미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연이란 항시(恒時)로 도식화될 수 있다. 범주 자체를 그릴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감성적 파악이나 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범주를 경험적으로 재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선험적 시간규정에 따라 우리가 미리 그 상을 형성할 수는 있다. 즉 경험을 통한 재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선험적인 시간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상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식이란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 시간규정에 따라 범주를 감성적으로 창조하는 행위다. 경험적 상이 부재하더라도 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범주의 도식화를 통해 범주를 감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구상력을 범주와 감성을 통일시키는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칸트 철학에 있어서 핵심은 종합을 해명하는 데 있다. 범주란 근원이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범주는 고립될 때는 아무 의미도 없다. 범주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대상일반과 관련을 맺고 대상일반을 규정할 때만 가능하다. 구상력이란 범주와 감성을 연결하는 매개중심이 아니라 범주를 현상일반에 적용시키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감성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칸트의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철학적 최후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칸트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 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범주를 감성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는 이성을 도식화할 수가 없다. 이성은 전체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체를 그릴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이성의 쉐마는 불가능하다. 자연 전체와 자유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상으로 그릴 수가 없다.

수학

칸트는 수학을 선험적 종합판단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수학을 분석판단으로 보는 입장과 확연히 구별된다.

칸트는 직관 속에서 개념을 그리는 것을 구성(Konstruktion)으로 본다. 수학은 이 점에서 개염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Einen Begriff aber konstituieren heißt : die ihm korrespondierende Anschauung a priori darstellen."(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아 프리오리하게 그리는 것이다.)

칸트는 수학이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한다 : 5+ 7=12

칸트에 따르면 5, 7, +를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는 12가 들어있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것은 종합적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7을 수의 직관적 구성 중에서 5와 결합할 경우에만 12가 된다. 확장적 크기(extensive Größe)에 있어서만 둘은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의 종합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 종합은 구성에 따른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기하학도 마찬가지다.

비판 : 수학은 분석판단이다. 칸트는 분석판단을 인식의 확장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 칸트는 모든 분석판단의 부정은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술어가 단지 주어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칸트의 분석판단에 대한 정의는 문제가 많다. 분석판단은 칸트에 따르면 언제나 내용을 단지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는 수학을 분석판단과 같이 수행되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학을 종합판단으로 보고 있다.

선험적 종합판단은 한편에서는 아프리오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험적이다. 분석판단은 아프리오리하지만 종합적이지는 않다. 수학은 개념을 순수직관 속에서 그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이 된다. 이것이 칸트의 기본 주장이다.

수학에서 공리는 가장 확실한 자명성이거나 아니면 정의에 의해서 참이다. 우리는 공리로부터 정리를 파생하고 이 파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증명이란 필연성을 밝히는 것이다. 필연은 어떤 경우에도 대안이 없기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알도록 강제당한다. 수학은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 따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하학이나 대수학에 있어서 개념을 직관 속에서 그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개념을 직관 속에서 종합하는 활동 때문에 수학이 종합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증명할 때 공리로부터 정리로의 도출이 필연적이기에 우리는 수학을

필연성 증명이라고 한다. 필연은 필연적으로 분석적이다. 그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귀류법(regressus ad absurdum)은 간접증명으로서 필연성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